

씨원아일랜드 공사, 주민 피해 속출

논농사·양식업 종사자 고통 호소
작업 진·출입로 안내판 설치 안해
신안 “비산먼지 과태료 부과할 것”



신안군 자은면 씨원아일랜드 인근 유각리에서 논농사를 짓는 주민 A씨는 올해 두 차례나 모내기를 했으나 고사하는 아픔을 겪고 있다. /신안=이주열 기자

신안군 자은면에 들어선 씨원아일랜드 건립 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1년 7개월간의 공사 끝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고 최근 영입에 들어갔으나 정작 공사 과정에서 추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주민들의 재산 피해는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6일 자은면민들에 따르면 씨원아일랜드 주변에서 논농사와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이 영문 모를 피해로 큰 실의에 빠져 고통을 호소했다. 공사장 인근 유각리에서 논농사를 짓는 주민 A씨는 올해 두 차례나 모내기를 했으나 고사하는 아픔을 겪고 있다. A씨는 “대대로 내려온 문중 땅에서 매년 농사를 지으면서, 씨원아일랜드 건립 공사 전에도 논 주위의 크고 작은 4개의 웅덩이에서 물을 끌어다 썼었다”며 “지난 5월 첫 모내기를 했으나 거의 말라 죽어 갈아엎고 6월 초에 모를 다시 심었는데도 무슨 이유인지 또 고사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근 바다에서 조피불락과 돔 양식을 하는 B씨와 새우양식업에 종사하는 C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B씨는 “지나해부터 치어 생산을 해 오고 있으나 공사 차량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진동, 소음, 야간 불빛으로 양식이 현격히 떨어졌다”고 밝혔다. 피해 주민들은 “회사(시공사) 측은 허가 당시 주 작업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에 안내판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공사장 인근에 농지나 양식장 피해를 인지했음에도 버젓하게 양식장 앞 방조제를 점용

하고 오가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안군은 저지오염합건설에 공사 기간 동안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해 두 차례, 소음과 진동에 따른 방진, 방음막 설치 미비에 따른 특정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은 증축동 공사와 관련해서도 지난 6월 30일 비산먼지 신고 기간이 만료됐으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저지오염합건설 관계자는 “문제점에 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며 “앞으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주열 기자

최영주 담양 부군수 취임... “무거운 책임감 가질 것”

제26대 담양 부군수에 최영주 전 전남도 대변인(사진)이 최근 취임했다. 장성출신의 최 부군수는 광주서강고와 전남대를 거쳐 연세대 행정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1997년 국가직 7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행정안전부, 중앙인사위원회, 국무총리실, 국민안전처 등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5일자 전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담양군 부군수로 부임했다.



최영주 부군수는 “민선 8기 새로운 담양으로 향하는 여정에 함께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담양을 만드는 데 역량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한국해양소년단전남서부연맹이 주관하고 전남도와 목포시가 후원하는 목포시민을 위한 해양레저스포츠 무료체험행사가 평화광장 앞 해상에서 펼쳐지고 있다. /목포시 제공

“목포평화광장서 해양레포츠 체험하세요”

9월 말까지 무료 운영
목포시민을 위한 해양레저스포츠 무료체험행사가 평화광장 앞 해상에서 펼쳐지고 있다. 6일 목포시에 따르면 한국해양소년단전남서부연맹(연맹장 조운형)이 주관하고 전남도와 목포시가 후원하는 평화광장 해양레저체험교실이 오는 9월말까지 시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체험교실은 동력레저기구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이다. 카약, 패들보드 등 무동력 레저기구 외에도 제트보트와 바나나보트, 제트스키 등이 추가돼 짜

릿한 해양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모든 체험은 현장접수로만 운영되며, 무동력 레저기구는 평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주말은 체험객 수요를 반영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한다. 제트보트는 매일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40분까지 실시한다. 이외에도 올해는 해양레포츠만의 색다른 즐거움을 주기 위한 바나나보트와 제트스키 체험행사도 준비돼 있다. 제트스키와 바나나보트 체험은 7월과 8월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목포=박승경 기자

축령산·백양사...장성 명품관광지 ‘조명’

그림같은 풍경 관광객 증가 기대



장성 필암서원 /장성군 제공

코로나 일상회복 이후 처음 맞이한 휴가철, 축령산 편백숲과 백양사 등 장성군이 보유한 명품관광지들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대자연이 품은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이 많은 이들의 발길을 그러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축령산 편백숲은 조림왕 임종국 선생(1915~1987)이 만든 국내 최대 규모 인공조림지다. 편백나무, 삼나무 등 상록수들로 조성된 1,150ha 규모의 방대한 숲이 장관을 이룬다. 산림청이 지정한 ‘22세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에 이름이 올라 있으며, 7월에는 숲강사를 주제로 한 전남도 추천 관광지에 선정됐다. 천년고찰 백양사는 대외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관광지다. 백암산을 비롯해 고불매, 상계루, 애기단풍 등 눈길 닿는 곳마다 그림같은 풍경이 이어진다. 특히, 사찰에 머물며 몸과 마음의 건

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백양사 템플스테이’와 정관스님의 ‘사찰음식 체험’이 인기다. 최근에는 (재)전남도관광재단이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했다. 북하면 입암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남창계곡은 가족 단위 여행지로 제격이다. 여섯 개의 골짜기 사이로 시원하게 쏟아지는 계곡물을 지닌 ‘천연 워터파크’다. ‘장성8경’에 꼽힐 정도

로 절경을 자랑한다. 주말마다 1만 명이 꾸준히 찾는 장성호 수변길도 피서지로 유명하다. 두 개의 출렁다리가 설치돼 있는 ‘출렁길’과 명품 트레킹 코스 ‘숲속길’로 나뉜다. 풍성한 계절꽃이 피어나는 황룡강은 울가물에도 축제를 개최해 ‘10억 송이 꽃강의 기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필암서원도 빼놓을 수 없는 관광 코스다. 성리학자인 하서 김인후 선생이 배향된 장성 필암서원은 조선시대의 사회·경제상과 학자들의 생활상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다.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장성군은 지난해 전남도가 주관한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에 선정돼 준비 포함 3년간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필암서원을 중심으로 장성의 선비문화를 널리 알리고, 세계화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성=전일용 기자

무안, 영화 ‘헤어질 결심’ 지역민 할인 상영

내일 승달문화예술회관

무안군은 박찬욱 감독, 탕웨이, 박해일 주연의 ‘영화 헤어질 결심’을 오는 8일 오후 7시 20분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상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영화 ‘헤어질 결심’은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로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

티켓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할인된 가격인 3,000원에 판매 중이며, 승달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제23조에 해당되는 감면대상자는 50%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다. 티켓예매는 승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muang.go.kr/culture)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경우 전화예매(061-450-4090)도 가능하다. /무안=박주현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장흥읍 지사협, 사랑의 광주리 나눔 행사

장흥군 장흥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현중·강경일)가 최근 ‘사랑의 광주리’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기탁금으로 밀반찬 3종(절갈·장조림·애호박나물)과 과일을 마련했으며, 장흥읍새마을부녀회(회장 송애자)에서 미역냉국, 감태, 양념LA갈비를 후원했다. 기타 후원물품인 요구르트, 라면도 함께 담았다. 행사 당일 장흥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들이 거동불편 저소득 독거어르신 등 40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고 밀반찬과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강진경찰서, 유관기관 대테러 합동훈련

강진경찰서는 최근 강진군 종합운동장에서 이주화 되고 있는 신종 드론 테러를 가상해 강진경찰서, 강진소방서 및 제 8539부대 3대대 등 40여명이 참여한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훈련은 다중밀집시설에 폭발물을 매단 드론이 침입해 차량을 폭

발하는 상황에서 유관기관이 합동해 테러범 진압, 대피 및 인명구조, 화재 진화 등을 실시했다. 위동섭 강진경찰서장은 “앞으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지속·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상황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나주농업진흥재단-진도군수협, 업무협약

나주 로컬푸드가 올해 개장을 앞둔 진도군 로컬푸드 직매장에 진출한다. 나주농업진흥재단은 최근 진도군 수산업협동조합과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서에는 농수산물 제후 출하 및 제반 사업 추진을 위해 양 기관이 공동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단은 진도군수협에서 보충한 고품질 국내산 수산물을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선보이고 진도군 로컬푸드마켓 ‘진도어섬’에 나주산 농산물을 납품할 예정이다. 아울러 로컬푸드 판매 확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 활동과 지속가능한 농·수산물 수급체계 구축에 꾸준한 협력하기로 했다. /나주=조승권 기자